

『음악논단』 연구윤리 규정

개정일: 2017년 5월 16일

제1장 목적

본 규정은 학술지 『음악논단』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자 및 심사자, 편집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장 연구자 의무

제1조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조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할 수 없다.

제3조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제3장 연구자에 대한 윤리규정

제1조 표절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에서 전부, 혹은 일부를 출처의 명시 없이 그대로, 혹은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타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인용, 참조할 경우 그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제2조 중복게재 및 이중출판

연구자는 국내외에서 게재 예정에 있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하여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업적물을 이중출판, 이중투고하지 않는다.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명확히 인용하여야 한다.

제3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정확하게 기술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 접촉을 통해 입수한 자료의 경우에도 반드시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한다.
- 2)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참고할 경우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차용,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느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느 부분이 연구자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 논문 수정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 및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야 한다. 만약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에 대한 윤리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은 연구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뿐 아니라, 그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상관없이 오직 논문의 학술적 질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투고된 논문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해당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편집위원회가 최종결정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타인에게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5장 심사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으로부터 심사 의뢰받은 논문을 정해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단, 논문의 내용을 평가

하기에 자신이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연구자와의 사적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거해 공정하게 논문을 평가하여야 한다. 논문을 탈락시킬 때에는 반드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은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편집위원(회) 이외의 타인에게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논문에 대해 타 연구자와 논의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연구자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제4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연구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제6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지침

제1조 연구윤리 위반이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윤리위원회의 임무를 맡아 위반 혐의에 대해 제보자, 저자, 참고인, 증거자료 등을 통해 폭넓고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제2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연구자는 편집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3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연구자는 편집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은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연구자에 대한 신원 및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5조 조사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징계를 취한다.

- 1)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의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연구자에게 공지한다.

-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연구자는 이후 3년간 『음악논단』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7장 심사윤리 위반에 대한 지침

제1조 심사위원이 제4장 제2조나 제3조를 위반할 경우 편집위원회(윤리위원회)는 그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해야 한다.

제2조 심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심사자는 편집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조 제1조의 위반여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4조 심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이후 3년간 『음악논단』의 논문 심사를 할 수 없다.

제8장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음악논단』 투고 규정

개정일: 2026년 7월 20일

- 본 학술지는 매년 2회(4월 30일, 10월 31일) 발행한다.
- 게재 신청 마감은 원고 제출 마감 한 달 전, 심사 완료는 발행일 한 달 전으로 한다. 구체적인 게재 신청 및 원고 제출 일정은 매호 별도로 공고한다.
-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아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원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I. 기본 체제

1. 『음악논단』에 투고할 수 있는 원고는 학술 논문과 비평으로 구분한다.
 - 1) 학술 논문의 주제는 음악학의 제분야(음악사, 음악이론, 음악인류학, 음악철학, 음악미학, 음악심리학, 음악사회학 및 관련 융합 연구)로 한정한다. 본 학술지의 심사 역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특수 분야의 원고는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되지 않을 수 있다.
 - 2) 비평은 시론, 서평, 공연평, 학술대회 비평을 포함하며, 모든 비평 원고는 투고 후 심사를 거치거나 편집위원회의 위촉을 통해 게재된다.
 - (1) 시론: 음악학 제분야의 주요 쟁점 및 동향에 대한 답론
 - (2) 서평: 음악학 관련 국내외 전문 학술 도서에 대한 비평
 - (3) 공연평: 학술적 논의 가치가 있는 공연에 대한 비평
 - (4) 학술대회 비평: 국내외 주요 학술대회에 대한 비평
2.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파일은 개방형 문서 형식(.hwp, .docx)을 원칙으로 하고, 이전 형식(.hwp, .doc)도 허용한다.
3. 원고는 다음 순서로 정렬한다.
 - 학술 논문: 제목, 저자명, 본문, 검색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영문초록

- 서평: 제목, 서평자, 대상 도서의 서지 정보(저자, 제목,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본문
4. 저자의 소속과 지위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대학 소속자는 소속 대학과 교수, 강사, 연구원, 학생 등의 지위를 밝힌다. 초·중등학교 소속자는 소속 학교와 교사 또는 학생의 지위를 밝힌다.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는 최종 소속 학교와 재학 연도를 밝힌다.
 5. 원고의 악보, 도표, 그림은 출판 가능한 상태로 제출한다.
 6. 분량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 1) 학술 논문: 200자 원고지 160매 이내(각주 및 공백 포함). 국문초록, 영문초록, 참고문헌, 악보, 도표, 그림을 포함하여 A4 25매를 초과하지 않는다.
 - 2) 비평: 200자 원고지 80매 이내. 서평의 경우 인용문이 전체 분량의 10%를 넘지 않도록 권장한다.
 - 3) 단, 학술적 논의를 위하여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분량 기준에 예외를 둘 수 있다.

II. 표기 총칙

1. 준거와 역할 분담

논문 작성의 표기 원칙은 다음 두 준거의 역할을 나누어 적용한다.

- **국어 정서법 및 표기**는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 최신판(2025)의 제1부(한글 맞춤법), 제2부(표준어 규정), 제3부(외래어 표기법)을 따른다.
- **서지 및 인용 체제**는 『시카고 편집 매뉴얼』(*The Chicago Manual of Style*, 이하 CMS) 최신판(제18판, 2024)의 각주·참고문헌(notes-bibliography) 방식을 본 규정에 맞추어 따른다.

두 준거가 상충하는 지점에서는 본 규정의 개별 조항이 우선한다. 특히 제목·인용 부호 표기(II.3)와 서지 표기(IV, V)는 학술지의 관행과 CMS를 기준으로 삼으며, 이 부분에서는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의 부호 용법을 따르지 않는다.

본 규정은 CMS 제18판을 준거로 삼되, 한국어 학술지의 여건에 맞추어 다음을 의도적으로 달리한다.

- 출판지는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1차 문헌이나 역사적·희귀 판본 등 출판지가 식별에 필요한 경우에만 밝힌다. 제18판도 생략을 허용하며, 한국 학술 환경에서 출판지의 정보 가치는 크지 않다.
- 정기간행물의 페이지 앞에 콜론(:) 대신 쉼표(,)를 두어 모든 문헌 유형과 통일한다.
- 저자가 4인 이상일 때 대표 3인을 적고 ‘외’(영문 et al.)를 붙인다.
- 서지의 모든 날짜를 한글로 표기한다.
- 글(낫표)과 음악 작품(화살괄호)을 부호 계열로 구분하고, 번호 도판에는 대괄호([])를 쓴다.
- 제18판이 이미 권고하는 사항(예: ibid. 대신 단축형 사용)은 본 규정도 그대로 따른다.

2. 문장 부호와 줄표

- 1) 문장 부호로서의 전각 줄표(em dash, —)는 사용하지 않는다. 부연·삽입은 쉼표, 괄호, 또는 별도의 문장으로 처리한다.
- 2) 외국어 원문에 쓰인 콜론(:), 세미콜론(;), 하이픈(-)은 국문 문맥에 맞게 마침표, 쉼표, 괄호 등으로 바꾸어 쓴다. 인용문, 개념어, 인명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 3) 페이지·연도 등 수치의 범위는 반각 줄표(en dash, -)로 표기한다. 예) 32-35, 1685-1750.

3. 인용 부호와 제목 표기

제목과 인용의 부호는 글과 작품을 두 계열로 나누어 적용한다. 글은 낫표 계열, 작품은 화살괄호 계열을 쓰고, 각 계열에서 큰 단위는 겹, 작은 단위는 홑으로 표시한다.

부호	대상	국문	영문	용례
겹낫표『』	큰 글	단행본, 학술지, 신문, 잡지	이탤릭	『서양음악사』, 『음악논단』

부호	대상	국문	영문	용례
홑낫표 「 」	작은 글	논문·기사·장(章) 제목	“따옴표”	「소리 미디어의 사회문화사」 / “Rameau and Eighteenth-Century Music Theory”
겹화살괄호 《 》	큰 작품	오페라·오라토리오·연가곡·발레·교향곡·협주곡 등 대규모 독립 작품과 음반	고유 표제는 이탤릭, 총칭 제목은 정체	《마술피리》, 《교향곡 제3번》 / <i>Die Zauberflöte</i> , <i>Symphony No. 3</i>
홑화살괄호 〈 〉	작은 작품	개별 곡·악장·아리아·소품	고유 표제는 “따옴표”, 총칭 제목은 정체	〈밤인사〉 / “Gute Nacht”
렌즈형 괄호 【 】	도판 번호	번호가 매겨진 악보·그림·표	동일	【악보 1】, 【그림 1】, 【표 1】
대괄호 []	편집 표시	웹 자료 접속일, 인용문 내 편집자 삽입	동일	[2025년 7월 15일 접속]
큰따옴표 “ ”	인용·별칭	직접 인용, 작품 별칭	동일	“영웅”, “Eroica”
작은따옴표 ‘ ’	하위 인용·강조	인용 안의 인용, 특정 어구의 강조	동일	‘리얼 타임’

국문은 글(낫표)과 작품(화살괄호)을 부호 계열로 구분하지만, 영문에는 이 구분이 없어 CMS를 따른다. 곧 큰 단위(책·대규모 작품)의 고유 표제는 이탤릭, 작은 단위(논문·개별 곡)의 고유 표제는 따옴표, 작품의 총칭 제목은 정체로 쓴다. 이 때문에 총칭 제목은 국문에서 화살괄호로 묶이지만(《교향곡 제3번》) 영문에서는 정체로 남는다(Symphony No. 3).

- 1)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 ”)로, 강조 및 인용 안의 인용은 작은따옴표(‘ ’)로 표시한다. 번호가 매겨진 악보·그림·표는 렌즈형 괄호(【 】)로 표시한다. 예) 【악보 1】, 【그림 1】, 【표 1】
- 2) 마침표·쉼표와 인용 부호의 위치는 각 문자 체계의 표기 관례를 따른다. 이는 영문 따옴표가 인접 부호를 흡수하는 문장 부호인 반면 국문 낫표는 제목을 감싸는 괄호라는 기능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며, CMS와 국내 음악학 표기 표준이 모두 영문 따옴표 안쪽에 부호를 둔다.
 - 영문 큰따옴표: 마침표와 쉼표를 닫는 따옴표 안에 둔다. 예) “Rameau and Eighteenth-Century Music Theory,”
 - 국문 낫표(「 」, 『 』): 마침표와 쉼표를 닫는 낫표 밖에 둔다. 예) 「소리 미디어의 사회문화사」,

4. 인명·외국어·한자 병기

- 1) 인명은 처음 나올 때 한글로 이름 전체를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와 생몰연도를 함께 적을 수 있다. 생몰연도의 표기·생략 기준은 한 논문 안에서 일관되게 적용한다. 예)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 (1) 앞서 언급한 인물이 다시 나올 때 외국인은 성(姓)만 쓰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이름을 함께 쓴다.
- 2) 필요한 한자와 외국어는 괄호 안에 적는다. 외국어는 모두 소문자로 쓰되, 인명의 첫 철자는 대문자로 쓴다. 예) 악학궤범(樂學軌範), 으뜸화음(tonic), 슈베르트(Franz Schubert)

5. 본문 구성과 검색어

- 1)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서론은 “들어가며” 또는 “들어가는 글”로, 결론은 “나가며” 또는 “나가는 글”로 표시할 수 있다.
- 2) 단락은 행 띄기 없이 들여쓰기로 구분한다. 단, 각 장 또는 절의 첫 단락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

- 3) 본문 끝에 한글 검색어와 영문 검색어를 적는다. 개별 검색어가 그 안에 쉼표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검색어와 검색어 사이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영문 검색어는 각 항목의 첫 단어와 고유명사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쓴다. 예) Canon formation; Music historiography; Franz Schubert; Nineteenth-century reception

III. 작품명 표기

음악 작품명은 글이 아닌 작품이므로 화살괄호 계열로 표기한다. 국문에서는 규모에 따라 겹화살괄호와 홑화살괄호를 나누어 쓴다. 조성과 작품 번호는 제목 뒤에 정체로 덧붙인다.

1. 대규모 독립 작품(오페라, 오라토리오, 연가곡, 발레, 그리고 교향곡·협주곡·소나타·사중주 등 여러 악장·악곡으로 이루어진 대작과 음반)
 - 국문: 겹화살괄호 《 》. 예) 《마술피리》, 《겨울 나그네》, 《교향곡 제3번》 내림마장조, 작품 55
 - 영문: CMS에 따라 고유 표제를 가진 작품은 이탤릭, 총칭 제목은 정체로 쓴다. 예) *Die Zauberflöte*, *Winterreise*, *Symphony No. 3 in E-flat Major*, op. 55
2. 개별 곡·악장·아리아·소품(대작의 한 부분이거나 단독 소품)
 - 국문: 홑화살괄호 〈 〉. 예) 《겨울 나그네》 중 〈밤인사〉
 - 영문: 고유 표제는 따옴표, 총칭 제목은 정체로 쓴다. 예) “Gute Nacht”
3. 총칭 제목(장르·형식에 번호가 붙은 제목)도 작품이므로 위 규모 기준에 따라 국문에서는 화살괄호로 묶는다. 영문에서는 CMS에 따라 정체로 두고 괄호나 이탤릭을 쓰지 않으며, 주요 단어를 대문자로 쓴다. 국문이 화살괄호를 쓰는 것은 한국어에 제목을 세우는 대문자 표지가 없어 가독성을 위한 것이다.
4. 별칭(nickname)은 제목 뒤에 따옴표로 덧붙인다. 예) 《교향곡 제3번》 내림마장조, 작품 55, “영웅” / *Symphony No. 3 in E-flat Major*, op. 55, “Eroica”
5. 작품 번호 약어는 관례를 따른다. op.(작품 번호)와 no.(같은 작품 번호 내 순번)는 소문자로 쓰고, 인명·목록에서 온 약어(K.(코헬), BWV, D.(도이치), Hob.(호보켄) 등)는 대문자로 쓴다. 약어와 숫자 사이에는 반 칸을 둔다. 예) op. 58, no. 2, K. 219, BWV 1004

IV. 서지 표기 공통 원칙

1. 서지 요소의 순서

기본 정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저자 - 제목 - 작품 번호 - 번역자·편집자 - 판 - 권 - 권의 제목 - 출판지 - 출판사 -
출판년도 - 페이지

CMS와 마찬가지로 번역자·편집자는 제목 바로 뒤에, 판(edition)은 그다음에, 권(volume)은 판 뒤에 둔다.

출판 정보의 처리는 각주와 참고문헌이 다르다. 각주에서는 이를 괄호로 묶어 ‘(출판사, 출판년도)’ 형태로 적고, 참고문헌에서는 괄호 없이 마침표로 구분한다(IV.2 참조). 위 순서에서 괄호를 쓰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며, 괄호는 각주에서만 나타난다.

각주에서 출판 정보 괄호 앞에는 한 칸을 띄운다. 예) 『서양음악사: 18세기 음악』 (음악세계, 2006). 다만 원어·원제를 밝히는 병기 괄호는 앞말에 붙인다(II.4 참조). 예) 『음악 분석 연구』(*Challenge to Musical Tradition*).

출판지는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다만 1차 문헌(사료), 역사적·희귀 판본, 재출판에서 원본과 재판을 구별해야 하는 경우 등 출판지가 문헌 식별에 필요할 때에는 밝히며, 이때 각주는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참고문헌은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로 적는다.

2. 각주와 참고문헌의 구분

각주와 참고문헌은 다음 세 가지에서 형식이 다르다.

	각주	참고문헌
이름 순서	이름-성(First Last)	성, 이름(Last, First)으로 도치. 국문명은 도치하지 않는다
요소 구분	쉼표로 잇고 출판 정보를 괄호로 묶는다	마침표로 끊고 출판 정보의 괄호를 없앤다
페이지	인용한 특정 페이지	논문·장(章)은 전체 페이지 범위, 단행본은 생략

- 각주 예) Christoph Wolff, *Johann Sebastian Bach: The Learned Musician* (W. W. Norton, 2001), 32–35.
- 참고문헌 예) Wolff, Christoph. *Johann Sebastian Bach: The Learned Musician*. W. W. Norton, 2001.

3. 저자·번역자·편집자

- 1) 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 국문은 가운뎃점(·)으로, 영문은 ‘and’로 잇는다. 서로 다른 요소(저자와 번역자 등)는 쉼표로 구분한다.
 - (1) 영문에서 3인일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름 사이에 쉼표를,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름 사이에 ‘and’를 둔다.
 - (2) 4인 이상일 경우 각주·참고문헌 모두 대표 3인을 적고 그 뒤에 “외”(영문 et al.)를 붙인다. 예) 정경영·김경화·권현석 외
- 2) 번역자·편집자는 각주에서 이름 앞에 ‘trans.’ ‘ed.’를 붙인다(‘by’ 없이). 참고문헌에서는 ‘Translated by’ ‘Edited by’로 풀어 쓰되, 마침표 뒤에서 새 요소를 시작할 때는 대문자로, 수록 문헌 제목에 이어 적을 때(‘In Title, edited by ...’)는 소문자로 쓴다. 국문은 ‘옮김’ ‘편집’으로 적는다.
- 3) 편집된 책 전체를 인용할 때는 편집자를 맨 앞에 둔다. 국문은 편집자명 뒤에 ‘편’, 영문 각주는 ‘, ed.’(복수 ‘, eds.’), 참고문헌은 ‘, ed.’로 적는다. 편집자가 번역을 겸하면 국문 ‘편집 및 옮김’, 영문 ‘ed. and trans.’로 적는다.

- 각주 예) David Gramit, ed., *Beyond the Art of Finger Dexterity: Reassessing Carl Czer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08).
- 참고문헌 예) Gramit, David, ed. *Beyond the Art of Finger Dexterity: Reassessing Carl Czer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08.

4. 판·권·재출판

- 1) 판(edition)은 국문 ‘2판’ ‘개정판’으로, 영문 각주는 ‘2nd ed.’ ‘rev. ed.’로, 참고문헌은 ‘Second Edition’ ‘Revised Edition’으로 적는다.

Charles Rosen, *Sonata Forms*, rev. ed. (W. W. Norton, 1988), 365.

- 2) 총 권수는 국문 ‘총 2권’, 영문 각주 ‘2 vols.’, 참고문헌 ‘2 Vols.’로 적는다.

Berthold Litzmann, *Clara Schumann: An Artist's Life Based on Material Found in Diaries and Letters*, trans. Grace E. Hadow, 2 vols. (Macmillan, 1913).

- 3) 전체 문헌 중 특정 권을 지시할 때는 ‘권:페이지’로 적는다.

Richard Taruskin, *The Oxford History of Western Music*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3:676–682.

- 4) 재출판 문헌의 원 출판 정보를 함께 밝힐 때는 원 출판 정보 뒤에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 각주는 ‘repr.’, 참고문헌은 ‘Reprint’와 함께 재출판 정보를 적는다. 이 경우 원본과 재판을 구별하기 위해 출판지를 밝힌다.

Carl Czerny, *School of Practical Composition*, trans. John Bishop, 3 vols. (London: Robert Cocks, ca. 1848; repr., New York: Da Capo Press, 1979).

5. 수록 관계의 표기(‘in’)

영문에서 표제를 가진 수록 문헌(단행본, 논문집, 발표 논문집, 사전 등)에 실린 글을 인용할 때는 수록 문헌 제목 앞에 ‘in’을 둔다. 정기간행물(학술지·잡지)에는 두지 않는다. 국문에서는 ‘in’에 해당하는 표현 없이 수록 문헌의 제호를 이어 적는다.

- 영문 예) Joel Lester, “Rameau and Eighteenth-Century Music Theory,” in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 ed. Thomas Christens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753–754.

- 국문 예) 신현준, 「소리 미디어의 사회문화사」,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유선영·박용규·이상길 외 편집 (한국언론재단, 2007), 387.

6. 페이지·날짜·부호

- 1) 페이지 앞에는 언제나 쉼표를 둔다. CMS가 정기간행물에 한해 쓰는 콜론(:)은 쓰지 않으며, 모든 문헌 유형에서 쉼표로 통일한다. (단, 특정 권을 지시하는 ‘권:페이지’의 콜론은 예외이다.)
- 2) 정기간행물의 권·호는 ‘권/호’로 적는다. 예) 『음악논단』 7 (1993), 69. / *Popular Music* 11/2 (1992), 234.
- 3) 서지에 나타나는 모든 날짜는 자료의 언어와 무관하게 한글로 표기한다. 여기에는 출판일, 편지·일기의 작성일, 영상의 업로드일, 신문·기사의 발행일, 웹 자료의 접속일이 모두 포함된다. 예) 2013년 4월 17일, [2025년 7월 15일 접속]

7. 저자 미상·재인용·반복 인용

- 1) 저자를 알 수 없으면 저자 항목을 비워 두며, 참고문헌에서의 배열은 맨 뒤로 한다.
- 2) 재인용은 원문을 적고 세미콜론으로 구분한 뒤 재인용 문헌과 함께 ‘~에서 재인용’을 적는다.

Ferdinand Luib, “Karl Czernys Nekrolog,” *Wiener Theaterzeitung* 51 (1857), 705; Biba, “Carl Czerny and Post-Classicism,” 21에서 재인용.

- 3) 라틴어 약어 *ibid.*, *op. cit.*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미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단축형(저자 성, 단축 제목, 페이지)을 쓴다. 예) Wolff, *Johann Sebastian Bach*, 40.

V. 각주·참고문헌 표기 예시

각 유형은 각주 형식으로 제시하며, 참고문헌 형식은 IV.2의 변환 규칙(이름 도치, 쉼표를 마침표로, 출판 정보 괄호 제거, 논문·장은 전체 페이지 범위)에 따라 만든다. 단행본부터 학위논문까지는 각주와 참고문헌을 함께 보였다. 한편 잘 알려진 사전류, 개인 인터뷰·서신 등 CMS가 참고문헌에 실지 않는 자료는 각주 형식으로만 인용한다.

1. 단행본

- 이남재·김용환, 『서양음악사: 18세기 음악』 (음악세계, 2006), 246.
- 이남재·김용환. 『서양음악사: 18세기 음악』. 음악세계, 2006.
- Christoph Wolff, *Johann Sebastian Bach: The Learned Musician* (W. W. Norton, 2001), 32-35.
- Wolff, Christoph. *Johann Sebastian Bach: The Learned Musician*. W. W. Norton, 2001.

2. 번역서

원저자명 뒤에 국역 제목을 겹낫표로, 원제를 이탤릭으로 병기한다.

- Adele Katz, 『음악 분석 연구』(*Challenge to Musical Tradition: A New Concept of Tonality*), 서우석·김은혜 옮김 (수문당, 1982), 4.
- Katz, Adele. 『음악 분석 연구』(*Challenge to Musical Tradition: A New Concept of Tonality*). 서우석·김은혜 옮김. 수문당, 1982.

3. 단행본·논문집에 수록된 장(章)

- 신현준, 「소리 미디어의 사회문화사」,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유선영·박용규·이상길 외 편집 (한국언론재단, 2007), 387.
- 신현준. 「소리 미디어의 사회문화사」.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유선영·박용규·이상길 외 편집. 한국언론재단, 2007, 387-410.
- Joel Lester, “Rameau and Eighteenth-Century Music Theory,” in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 ed. Thomas Christens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753-754.
- Lester, Joel. “Rameau and Eighteenth-Century Music Theory.” In *The Cambridge History of Western Music Theory*, edited by Thomas Christensen, 753-777.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4. 학술지 논문

- 김문자, 「서양음악사 용어의 한글화 현황 분석 연구」, 『음악논단』 7 (1993), 69.

- 김문자. 「서양음악사 용어의 한글화 현황 분석 연구」. 『음악논단』 7 (1993), 69-95.
- Tony Langlois, “Can You Feel It? DJs and House Music Culture in the UK,” *Popular Music* 11/2 (1992), 234.
- Langlois, Tony. “Can You Feel It? DJs and House Music Culture in the UK.” *Popular Music* 11/2 (1992), 229-238.

5. 학위논문

- 이미진, 「현대음악의 리듬 특성을 반영한 분석 모형」(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6), 5.
- 이미진. 「현대음악의 리듬 특성을 반영한 분석 모형」.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6.
- Hyekyung Park, “Theoretical Approaches to Deconstruction in Music: Music as a Language, Signature, Yin-Yang, and the Function of Motive” (PhD dis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2012), 9.
- Park, Hyekyung. “Theoretical Approaches to Deconstruction in Music: Music as a Language, Signature, Yin-Yang, and the Function of Motive.” PhD dis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2012.

6. 학술대회·발표 논문집

발표 논문집은 편저서(단행본)에 준하여, 논문집 제목을 겹낫표(영문 이탤릭)로 묶고 출판 정보를 괄호에 넣는다.

- 정혜경, 「리게티(György Ligeti) 피아노 연습곡의 리듬 구조: 제1권 제1번을 중심으로」, 『제2회 음악예술학회 정기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연주의 사유(思惟), 문헌과 음악 어법』 (음악예술학회, 2000), 6.
- Steven Jan, “The Theory and Analysis of Computer-Generated Music: A Case-Study of Colossus,” in *Proceedings of the Third Conference on Computer Simulation of Musical Creativity* (CSMC, 2018), 1-24, http://galapagos.ucd.ie/wiki/pub/OpenAccess/CSMC/Jan_2.pdf [2025년 11월 13일 접속].

7. 사전·백과사전

서명(署名)이 있는 항목은 장(章)에 준하여 인용한다. 서명이 없는 항목은 사전 제목·판·출판 정보를 적은 뒤, 국문은 “표제어” 항목’으로, 영문은 ‘s.v. “표제어”’(라틴어 *sub verbo*, ‘해당 표제어 아래’)로 표시한다.

- Ian D. Bent and Anthony Pople, “Analysis,”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 ed. Stanley Sadie and John Tyrrell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음악 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9), ‘바이올린’ 항목, 627.
- *The Harvard Dictionary of Music*, 4th ed., ed. Don Randel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s.v. “Figured bass.”

8. 신문 기사(인터넷 기사·블로그 포함)

- 허소민, 「The Pianissimo 2012 여덟 손의 향연 2」, 『음악교육신문』, 2012년 8월 15일.
- Lynnsay Maynard, “How World War I Made Beethoven’s Ninth a Japanese New Year’s Tradition,” *The Seattle Times*, 2015년 12월 30일, <https://www.seattletimes.com/entertainment/classical-music/how-world-war-i-made-beethovens-ninth-a-japanese-new-year-tradition/> [2020년 8월 14일 접속].

9. 잡지·대중 정기간행물

출판지와 출판사는 생략하고 제호, 발행 시점, 페이지만 적는다.

- 윤석진, 「피아노 앙상블 연주와 연구를 견실하게 수행해 온 The Pianissimo」, 『International Piano』, 2011년 6월호, 22.
- “Reception of Madame Pleyel by the English Press,” *Musical World* 21/21 (1846년 5월 23일), 239–241.

10. 악보

출판된 악보는 단행본에 준하되, 작품명은 III의 원칙을 따른다. 참고문헌은 제목과 부제를 하나의 이탤릭 제목으로 적는다.

- Wolfgang Amadeus Mozart, Violin Concerto No. 5 in A Major, K. 219, in *Neue Mozart-Ausgabe*, ser. 5, Werkgruppe 14, ed. Christoph-Hellmut Mahling (Bärenreiter, 1983).
- Beethoven, Ludwig van. *Klavier-Werke 3: Sonaten (3)*. 태림출판사, 1981.

11. 음반

- 장세정, 《울어라 은방울》, 오케레코드 8151-B (1948).
- Johann Sebastian Bach, *The Brandenburg Concertos*, Paillard Chamber Orchestra, RCA CRL2-5801 (1975).

12. 편지·일기

일반 단행본 형식으로 인용할 수도 있다.

- Franz Liszt, letter to Carolyne von Sayn-Wittgenstein, Schloss Wilhelmsthal, 1871년 7월 23일, in Ernst Burger, *Franz Liszt: A Chronicle of His Life in Pictures and Documents*, trans. Stewart Spenc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208.
- Clara Schumann, diary entry, 1886년 8월 1일, in Litzmann, *Clara Schumann*, 2:387.

13. 웹사이트·영상

- AIVA, <https://www.aiva.ai/> [2025년 7월 15일 접속].
- Gustavo Díaz-Jerez, “Iamus Computer: Adsum, for Orchestra,” *YouTube*, 2013년 4월 17일, <https://www.youtube.com/watch?v=PzrcoqpnZqA> [2025년 7월 31일 접속].

14. 프로그램노트·인터뷰 등 기타 자료

프로그램노트는 대상 작품을 III의 원칙대로 표기하고, ‘프로그램노트’는 자료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제목 부호 밖에 정체로 둔다. 표제가 없는 노트는 작품명으로, 표제가 있는 글은 그 표제를 홑낫표로 밝힌다.

- 정태봉, 《진혼 II: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며》 프로그램노트 (예술의전당, 2014).
- 강석희, 「음악극의 특성은 리얼 타임에 있다」, 《보리스를 위한 파티》 공연 프로그램 (2005).

- 김택수, 손민경과의 인터뷰, 스카이프 화상 인터뷰, 2018년 8월 18일.

VI. 초록

1. 국문초록은 500자(공백 제외) 이내, 영문초록은 25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국문 500자(공백 제외)는 학술 산문 기준으로 영문 250단어와 대략 대응하는 분량이다.
2.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포괄하되 연구의 배경보다 핵심을 전달한다. 상세한 요령은 RILM 초록 작성 가이드(How to Write a RILM Abstract)를 참고할 수 있다.
3. 중요한 인명, 장소, 기관의 이름은 약기하지 않고 모두 적으며 원어를 병기한다.
4. 구어체나 비공식적 표현을 피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명료하게 서술한다.